

# 조선을 보는 또 하나의 췌



이 속 인

조선. 유학의. 성. 담론



# 정절의역사

정절을 지킨 아내를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'정절을 해친' 아내에 대해 분노하고 응징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는가. 정절은 곧 국법이였다. 정절에 내포된 이러한 복합적인 의미와 그 숨겨진 비밀을 밝힘으로써



● 정절의 정치 : 15세기 김씨 부인의 자손들

● 소문의 정치 : 16세기 함안 이씨의 규방



- 1415년, 영돈녕부사 李枝와 趙禾의 미망인 김씨가 결혼
- 사헌부에서 李枝를 탄핵
- “아내 없는 남자와 남편 없는 여자가 서로 혼인하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?”(태종)



- 이지 1349~1427 : 이성계의 사촌. 원종공신. 좌의정 및 영의정 지냄.
- 김씨 1359~1432 ? : 金湊의 딸. 김주는 조선건국의 주체 신도시 한양의 성곽축조 권위자. 정2품 문하시랑찬성사.
- 趙禾 : 영의정 지냄. 개국공신 趙浚의 조카.

- 1427년(세종 9) 79세 이지, 향림사에서 의문사.
- 공신의 딸이고 공신의 아내이지만 失行한 여자에게는 작위를 줄 수 없다. (조선경국전)
- 김씨 세 아들 趙深, 趙明初, 趙復初 및 손자들의 고난

- 1427년, 세종 조복초를 불러 “그대의 어머니를 서울 십리 밖으로 나가 살게 하라.”
- 통천 수령 趙深을 파면. “음란 부녀의 아들은 고을의 표준에 되기에 부적절하다.”
- 1427년(세종11), 김씨 손자 趙由信 문과급제. 東班 서용을 반대
- 1430년, “조심과 조유신은 동반이 아닌 西班에 서용하라”

- 1431년, 朴坤의 충청 관찰사 임명 거부. “장모 김씨의 음행이~”
- 1432년, **실행 부녀**의 자손, 과거 응시 금지 상소. 趙由智를 겨냥.
- 별시위 조유지는 추잡하고 더러운 행동이 이미 드러난 김씨의 손자입니다. ~~ 적어도 이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면 부녀의 도리를 어디에서도 바로잡을 데가 없고, 婦道가 바르지 않으면 백성의 풍속과 선비의 풍습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선량해지겠습니까. 국가에서 이 사람을 버리는 것은 九牛一毛에 불과할 뿐입니다.

《세종실록》 14년(1432) 3월 3일





- 1435년, 김씨 외손자 광흥창사 李士平의 告身 거부
- 1436년, 김씨 손자 판관 趙由禮와 부교리 趙由信 상소
- 신의 조모는 문벌의 후예로서 아름다운 옷과 사치스런 주택을 갖게 된 것이 사람들의 증오를 불렀을 뿐 조금도 규문을 엄숙히 다스리지 않은 과실 같은 것은 없습니다.
- 傳에 이르기를, ‘선한 것은 길이 내려가게 하고, 악한 것은 그 당사자에게 그치게 한다’ 고 한 것은, 고금의 제왕들이 인재를 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.

- 1447년, 조유례의 판통례 제수를 반대.
- 죽을 때까지 조심하고 삼가는 것은 한 몸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자손만대를 위한 염려이기도 합니다. 만일 ‘할아버지의 잘못이 어찌 후손에게까지 미치랴’ 라고 한다면, 누가 궁핍함을 고집 하면서 의리를 지키고, 절조를 가다듬어 좋은 이름을 후세에 남기려 하겠습니까.
- 하필 구태여 음탕하고 더럽기가 막심한 것의 후손을 조정의 가장 깨끗한 벼슬에 앉혀서 공론에 폐를 끼치게 하옵니까.

- 1452년(문종 2), 중추원 부사 趙由禮 사직을 요청
- 1452년, 김씨 외손자의 사위 金效孟의 감찰직 제수 거부 상소.
- 1460년(세조 6), 김씨 사위 朴坤의 사위, 成重識의 감찰 제수 거부.
- 1462년, 김씨 외손자의 아들, 李掄의 수령직 제수 반대 논의.
- 김씨의 행위, 63년(1399~1462) 동안 지속적으로 거론됨.

- “실행한 부녀의 所生과 개가한 여자의 所生은 문반과 무반 모두에 서용하지 않는다” (《경국대전》 刑典, 1461년)
- “실행한 부녀의 자식과 서얼 자손은 과거 응시를 허락하지 않는다” (《경국대전》 禮典, 1471년)
- 貞 / 節 / 烈, 貞節과 忠節 / 烈女와 忠臣
- **정절은 가족을, 충절은 국가를 지탱하는 이념**  
**정절은 가부장적인 통치의 편의를 위한 체제 이데올로기**



- 1569년, 진주의 사족 함안 이씨 소문 사건이 보고되다.
- 기대승 “세간에 혹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”
- 남명, 문인 吳健과 鄭琢에게 편지로 호소하다. <與子強子精書>

“淫婦의 남편인 하종악의 전처가 바로 내 죽은 형의 딸이기 때문  
입니다.”

“죄인 서너 명이 옥에 갇혀 거의 죽게 되었다가 되살아났으니, 그  
들이 원한을 품고 독심을 부리는 데 못하는 짓이 없어 보입니다. 흥  
계를 품고 기필코 쏘아 죽이려 한다고 합니다.”

“죽을 날은 멀지 않은데, 오직 하늘의 처분만 기다릴 뿐입니다.”

- 남명, 淫婦를 옹호한 李楨을 공격하다.

“10년 전 剛而를 만났을 때, 내가 음부의 일에 대해 분개하면서 ‘공은 한 집안 사람인데 어찌 중간에서 다리를 놓은 계집종을 강물에 던지지 않습니까?’ 라고 하자, 강이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. 그런데 뒤에 들리는 소문이 하종악의 한강변 밭과 밭 지기 종 몇 명을 음부로부터 받았더군요.” (<與子強子精書>)

● 남명, 門徒를 결집시키다.

“나는 그를 사절했는데, 그대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? 화난과 길흉은  
붕우 사이에 서로 알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감히 언급을 했습니다. 일찍이  
士論이 바야흐로 밝아진다고 들었는데, 公道가 암담한 것이 이런 지경  
에 이르렀으니 그래도 벼슬할 수 있겠습니까?” (<與子強子精書>)

● 남명의 절교 선언으로 지역에서 이정의 입지가 불안해지다.



- 남명의 문도, '음부' 이씨의 집으로 몰려가 우물을 메우고 집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하다. 毀撤을 단행한 주모자들이 옥에 갇히다.
- 절교당한 李楨, 퇴계 이황에게 그 억울함을 토로하다.  
퇴계, 장문의 답장을 보내다.
- 함안 이씨 사촌의 남편, **유희춘**은 서울의 권력가들을 찾아다니며 그녀의 '**정절**'을 주장하며 구명운동을 벌이다.  
“28세에 과부되어 열녀로서의 면모에 어긋나지 않았다.”

● 기대승

**지역의 賢者이자 長者인 남명, 이래도 되는가?**

“진주 유생들의 행위는 선비의 행동이 아니고 무뢰배들의 짓”

“ 推官들이 파직을 당한 것은 모두 조식이 떠들어서 그렇게 된 것”

- “조식과 이정은 평소 서로 친하게 사귀고 지냈는데, ~~ 하종악의 아내가 失行한 일로 인하여 명류의 長者들 사이에 서로 틈이 벌어지기까지 했으며 나이 젊은 사람들도 서로 배척하고 비방하니, 지극히 온당하지 않습니다. “

- 정인홍, 스승을 위한 변명

“나는 함양에서 곧바로 덕산으로 들어가서 선생께 모든 것을 고했다. 선생은 버럭 화를 내시며 “剛而가 한 집안에서 생긴 큰 문제를 은폐하면서 ~~”

“선생은 진사 하종악 후처의 음행 소문과 하종악의 孽妹가 이정의 첩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셨다. ~~ 감사는 마침내 하종악 집안의 시비와 종 원석 등을 체포했다. 그런데 함안 이씨 부인의 종형제가 요직에서 권세를 잡고 있어 이씨 부인을 적극 변호하여 마침내 그 사건이 해결되었다. 그 죄를 묻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무리들이 오히려 선생에게 책임을 묻고자 했다.”

- 퇴계 李滉, 구암 李楨을 위로하다
- “말도 안 되는 말들을 사람마다 서로 전하여 떠들어 대니 항상 의심이 없지 않았습니다. 曹君은 세상에 드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기에 나는 그 사람됨이 곳곳하여 속세를 초월하고 결백하여 이 세상 무엇으로도 그의 마음을 엿어 댈 수 없으리라 생각했는데, 저 향리 한 부인의 실행 여부가 그 무슨 더럽혀질 거리가 된단 말입니까.”

“무엇 때문에 그 높은 절개를 스스로 깎아 내리며 남들과 시비를 다투는 데 마음을 모두 허비하고 여러 해가 지나도록 여태껏 그만두지 않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.”

- 퇴계의 편지, 《퇴계집》(1600년) 간행으로 세상에 공개되다.
- 퇴계 학단에서 '이 사건'에 대해 오고 간 이야기들도 공개되다.
- 이 사건으로 남명 문인들과 퇴계 문인들의 갈등이 심화되다.
- 남명 문집 간행, 오건과 정탁에게 보낸 남명의 편지, 뜨거운 감자
- 李楨의 손자 李鯤變, 조부를 위한 변명 “疑訛拙辨” 발표
- 曹植의 아들 曹浚明, “反李鯤變拙辯”으로 반격

● 김장생

남명과 퇴계는 본래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는데, 하종악 처 소문 사건을 전해 듣고 더 옳지 않게 여겼다. 퇴계가 이정에게 편지를 보내 “애써 사실을 해명할 필요도 또 몸을 굽혀 의견의 일치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” 라고 했다.

● 성호 이익

남명의 훌륭한 명망으로도 이 陰事 때문에 죄를 면하지 못할 뻔했는데, 奇高峯 등 여러 사람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다행히 면했으니, 이는 士大夫의 밝은 경계가 된다. 일절 입을 다물고 피하는 것이 마땅하다.

● 송시열

남명은 御吏가 옥사를 엄하게 다스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퇴계와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기까지 하였네.

● 김주신

남명은 평생 고고하게 세속을 벗어나 있었으면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엄청난 낭패를 당했으니 진실로 애석한 일이다. 공자가 말하기를 “남이 어질지 않다하여 미워함이 심하면 난이 일어난다” 고 하였고, 맹자는 말하기를 “남의 좋지 않은 것을 말하면 그에 따른 後患을 어떻게 할 것인가?” 라고 했다. 성현의 짧은 이 말이 어찌 후인들에게 藥石이 되지 않겠는가.

- 소문의 정치, 風聞公事 합법화가 배경
- 미인을 물리치고 글 공부에 전념하여 큰 선비가 된 **남명 설화** 탄생.
- 16세기 '별들의 전쟁'에서 사족 부인 함안 이씨의 명예,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.

